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3. 29.(금) 11:00 < 3.30.(토) 조간 > 배포 2024. 3. 29.(금)

주요 수출지역 호실적 이어나가

-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력 수출시장 호실적이 전체 수출 견인
- '24년 제3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개최 … 지역별 맞춤형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9일(금) 오후 3시 대한상의에서 제3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수출은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며 '24.1~2월 합산으로 +11.2% 증가한 1,072억 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작년 역대 최대 수출액(1,157억 불, +5.4%)을 기록한 대미국 수출이 올해 1~2월에도 +17.6%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으며, 반도체(+141.1%), 일반기계(+60.2%), 자동차(+29.8%) 등 주력 수출품목들의 호조세를 바탕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중국 수출의 경우 '24년 들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IT)업황 개선으로 반도체(+41.3%), 디스플레이(+19.8%), 컴퓨터(+14.7%) 등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수출 플러스, 2월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한 아세안으로의 수출(3.7%)도 베트남(8.0%)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중남미 수출(26.6%) 또한 일반기계(29.6%), 석유제품(203.8%) 등이 증가 흐름을 견인 중이다.

* 지역별 '24.1~2월 수출(억불, %) : (미국)200.4(+17.6), (중국)203.5(+6.6), (아세안)173.4(+3.7), (중남미)45.4(+26.6)

* 대중국 일평균 수출(억불, %) : ('24.1월) 4.5 (+4.0%) → (2월) 4.7 (+4.8%) → (3.1~20일) 4.6 (+7.5%)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주요시장으로의 수출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월에는 조업일수 부족(△1.5일)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와 무역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신흥시장으로의 다변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수출현장 최일선 첨병인 대사관 상무관, 코트라 무역관 등과 원팀으로 움직여 각종 통상현안을 관리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결집하여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 진출지원을 위한 특별 수출보험 신설,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진출 해외법인에 대해 신규 무역보험 지원 등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FTA 조속 발효(GCC·UAE·필리핀 등) 및 FTA 신규협상(말레이시아), △EPA(경제동반자협정) 10개국* 본격 추진 등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몽골, 조지아,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여수항 (044-203-40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